

정교 분리와 국교 분리, 자유를 지켜야 한다

성경말씀: 고후13:5-8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 동료 목사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소개: 60세, 32년 전 공학 박사, 인하대 기계공학과 교수(28년), 전임 목사 아님, 파트타임 목사, 이런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섰다.

전광훈 목사님은 사실 잘 모르는 분,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형제로 지낼 분, 여기 모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목사님, 교회 성도들, 교회들도 다수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유: 왜 목사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느냐? 정교분리를 모르냐?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정체와 정교 분리와 국교 분리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의 데이터로 전하려고 한다.

1.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진리 그 자체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자체가 진리 영어로 크리스체니티,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체계,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는 자와 세력이 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창세기 창조 후 다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명령 마귀의 접근, 죄로 인해 인간 타락,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에 속박된 존재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 구속 역사: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하여 자유를 주는 것

최종 목표: 벴후1:4,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마귀가 망가뜨린 사람을 복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위치로 올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divine nature),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용 아래 뜻과 마귀의 뜻의 갈등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긴다.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 대적, 세상 문화를 마귀 문화로 만들어 추종자를 만든다. 영적 싸움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요8:44)

모두가 비뚤어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왼쪽이라고 한다(left, 외다, 외지다, 외롭다, 외골수 등).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로소 의자 전가되어 오른쪽에 속한 사람(옳다, Right) 고후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의: Righteousness, 옳은 것

마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가치를 보급하고 지키는 영적인 군사,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

2. 기독교의 진리

1.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히11:6, 롬1).
2.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창1:1).
3.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1:27).
4. 사람의 대적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켜 죄가 들어왔다(창3장, 롬5장).
5.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은 수태되면서부터 죄인이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시 51:5, 롬3:23).
6.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를 요구하신다.
7.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 즉 율바름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갈2:16).
8.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창조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구원할 수 있는 파워, 하시려는 의지(롬8:3)

9.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방법, 처녀 탄생,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고전 15:1-4)
10.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님의 파워로(요3, 엡2:8)
11. 그러면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변한다. 거짓에서 진리 편으로 돌아서게 된다(롬12:1-2).
12.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요일2:15-17).
13.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는다(살전4; 고전15).

그런데 이런 진리를 전하려면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신 목적

공생애 시작, 광야에서의 시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심

대언자 이사야의 책(눅4:18-19),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61:1-2, 마귀에게 갇힌 자들 구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심, 명령(행26:17-18).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 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에게 벗어나는 자유를 선포하고 주는 것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리스도인, 1. 개인의 영원한 삶, 2. 사람이 변한다, 3. 삶이 변한다, 4. 교회가 변한다, 5. 사회가 변한다, 6. 국가가 변한다, 7. 부강한 나라, 선도하는 나라

마귀의 기독교 공격

초대 기독교 시기: 로마 정부가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 번성, 결국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이러면서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국가 교회(State church) 시작, 삼위일체 논쟁 등 니케아 공회 등 교회의 공회를 황제가 주관함

이러다가 서로마가 망하는 틈을 타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 세상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함

이래서 교회 국가(Church state)가 시작됨

교회 국가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 계급 부활시킴(신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로마 카톨릭 시스템 구축,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성경 발간 금지, 읽는 것 금지, 오직 라틴어 미사), 구원받는 것 불가능, 이것이 바로 국가 교회 혹은 교회 국가의 최대 문제, 국가가 지정해 주는 종교인 천주교만 믿어야 함, 다른 것 불가능, 그래서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나 교회교라고 한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종교개혁: 주님의 초림 이후 최대 사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행위, 행위 구원 불가능 성경이 퍼져 나가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됨: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한 근대 시민 사회가 열리기 시작함, 사유 재산권 인정, 산업 혁명, 근대 시민 사회(사회 경제, 정치적 영역)

그런데 종교 영역에서는 여전히 국가 교회

루터 교회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국가 교회

영국은 성공회: 1534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수장령 발표, 왕이 교회의 수장, 영국 국교회 성공회

1540년경 칼빈의 개혁 교회: 제네바, 역시 교회가 제네바 시를 다스리는 국가 교회

1560년경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칼빈에게 성경을 배움, 장로교회

그러면서 영국의 비국교도(청교도 등)들이 신앙의 자유 요청, 대표적 사례: 천로역정, 존 번연 등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 플리머스 항 출방 신대륙으로 이동함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신대륙에서도 문제 발생
 청교도(개혁신교 장로교), 천주교, 성공회 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자기들끼리 국가 교회를 하려고 함
 그때에 침례교인들 등장; 국가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 1775년 패트릭 헨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결국 1776년 미국 독립, 1782년 헌법 제정: 미국의 헌법에 인류 최초로 양심의 자유 허용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이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자유 헌법 수용
 현재 100% 국가와 교회의 분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 이것을 국가와 교회의 분리로 이해하지 않고 '정교분리'라고 함.
 앞의 글자 정을 정치로 이해하므로 이런 문제 발생,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 발언 No!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교인들이 알가알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프레임,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말라. 이것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다. 이미 신사참배하라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 압박하는 일, 이런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목사와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자유 헌법을 만든 미국을 보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려면 이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들 필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위해 대학을 만들, 그 대학들이 바로 아이비리그 학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등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며 사회를 이끌고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육, 예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진리이다.
 그러면 인간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 정치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라: 똑같은 사람들, 말, 문화,
 그런데 1945년 해방된 뒤 74년이 지난 지금, 하나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 자유로운 국가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독재 국가, 자유 없음, 획일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치,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

정치는 어떤 특별한 것도 혹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당연히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먹고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하고요.
 이렇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또 가정의 확대가 국가입니다. 가정생활의 확대가 국가의 정치입니다.
 가정살림의 확대가 나라살림(정치 및 경제)입니다.
 정치는 어떤 특이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정 살림, 당연히 내가 챙겨야죠?
 정치 = 나라 살림, 당연히 국민이 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국민이니, 당연히 나라살림,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크리스천들도, 불교도들도,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것이 있으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가 무너지면 복음전파가 불가해집니다. 그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하나요?
 기도만하고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도한다며 애쓸 필요도 없겠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죠.

미디어선교도, 문서선교도, 거리설교도, 해외선교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될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정치적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혹은 내년에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동안은 어찌되든 견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이 적화되면 국민과 크리스천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나요?

그런 고통을 당해도 되나요? 정치에 관여 말고 기도만 하라는 자들은 바보이거나 사악한 자입니다. 미국의 경우 침례교 우세, 선거 때문 되면 보수주의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지지 선언

델러스 제일침례교회, Robert Jeffress 목사님, 폭스 뉴스, CNN, 트럼프 지지 선언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존 맥아더 목사님, 트럼프 지지

백악관 대변인, 새라 샌더스, 아버지는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아칸소 주), 침례교 목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주지사 협회 회장, 동성애 반대,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와 교회 분리 이미 이루어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도 된다.

지금은 투표로 지도자 선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독교 가치 지켜줄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

동성애, 진화론, 낙태, 과격한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가치 지켜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세계 역사를 보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자유 헌법 창시: 이들이 본 것, 개인과 통치자, 지도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면 개인과 국가 번영,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성경에서 자유 헌법을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려 함
세상에 존재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됨, 앵글로 색슨족, 대한민국은 이승만 덕택으로
막차를 탔음, 해양 세력

반면에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아르헨티나: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감,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 건설, 무상 복지, 의료, 교육 등 인기 영합주의, 사유 재산 부정,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 부정,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와 국민이 됨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들어가면 국가는 망한다(중세 로마 천주교,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면 복음 전파 불가능, 생존 불가능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 시도,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무상복지 확대,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 확대: 국가가 망하는 길,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52시간 이상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 최저 임금 국가가 정할 필요
없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교육: 자사고, 외고 모두 없애고 일반고와 혁신고학교, 제한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하는 교육, 의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금지 법 제정: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것, 기독교가 무너지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과 교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이다.

목사: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잠 22:3)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번영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도 대한민국 부인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확장(반대세), 반대세는 대개가 좌익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중북 친중,
반미 세력, 선동, 법치 파괴

성경의 판결: 이런 개인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목사들이 외쳐야 한다.